

어빙 레이턴의 홀로코스트 비판

이협* | 조선대

< 목 차 >

- I. 서론
- II. 홀로코스트에 대한 비판서
- III. 결론

국문초록

캐나다의 유대계 시인인 어빙 레이턴은 2차 대전에 발생한 홀로코스트를 비판하는 여러 편의 시를 썼다. 「아우슈비츠 이후」는 아도르노의 유명한 명제가 제시하는 메시지와 같은 관점을 표명한다.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을 비판하고 참회를 이끌어내려는 시적인 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시인은 간주한다. 「7515-03296을 위하여」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며 시대적 비극에 대한 비판을 가한다. 「홀로코스트의 희생자에게」에서는 유대계 희생자들과 시인과의 결속성이 강조된다. 「출혈」에서는 히틀러, 무솔리니와 스탈린 같은 독재자들이 붉은 낙엽에 비유된다. 진홍색 이미지는 유대인들의 피를 상징한다. 「라인 강 배 여행」에서는 라인 강변의 아름다운 경치가 대학살의 비극과 대조된다. 로렐라이의 유혹적인 노래 소리가 유대인들의 울부짖음에 묻힌다. 태양을 바라보는 포도밭의 포도송이는 히틀러를

*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조교수

맹목적으로 추종한 독일국민들을 상징한다. 「그림자」에서는 거만하고 반성하지 않는 나치를 조소하기 위하여 반어법이 사용된다. 이 비평시들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레이턴의 소망을 반영한다.

■ 주제어 : 어빙 레이턴, 유대계, 나치, 홀로코스트, 히틀러

I. 서론

어빙 레이턴(Irving Layton, 1912-2006)이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캐나다에서는 주요한 시인 중의 한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문인 중 한명인 에이브러햄 모세스 클라인(Abraham Moses Klein)은 레이턴을 “의심의 여지없는 밝고 꾸준한 별”(Powe 100)로 평가한다. 시인 및 방송인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TV 등의 대중매체에서 레이턴이 대중적인 명성을 얻은 사실을 의식한 평가로 보인다. 실제로 몬트리올에는 1981년에 노벨상 후보로 오르기도 했던 작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어빙 레이턴 거리”(Irving Layton Street)가 있고, 온라인 저널 『어린 수소』(The Bull Calf)는 레이턴의 유명한 시의 제목을 따서 명명되었다.

레이턴은 스스로 “호전적인 민주주의자”(Mansbridge 233)로 칭하면서 주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시인으로 유명했다. 특히 지배체제와 지배 계층에 대하여 비판적인 관점으로 시작활동을 했다. 체제 비판적이었던 그의 성향은 나치의 유대인 박해에 대한 비판으로도 이어졌다. 유대계인 레이턴은 군대에 입대한 동기가 “나치즘과 싸워야 한다는 확신”(Mansbridge 381)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서신에서 밝히기도 했다. 『편에 서기』(Taking Sides)에서 레이턴이 인식하듯이, “많은 유대인들 속에는 히틀러와 살인자 집단이 점화시킨 분노의 불길이 용서 못하는 광채로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116). 윈 프랜시스(Wynne Francis)가 지적하듯이 한편

으로는 “정통 유대교적인 양육의 엄격함에 저항”(25)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는 자신이 유대계라는 것을 평생 의식했다. 그는 나치의 유대인 박해에 대해 시인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시대의 시적인 수사는 아우슈비츠, 벨젠과 굴락의 경험과 동화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Mandel xi)고 레이턴은 지적하면서, 오직 자신만이 유대인의 박해를 시로 표현했다고 밝힌다.

생명을 찬양하는 평화주의자였던 레이턴이 나치와 히틀러를 풍자적으로 조소하는 반전시를 여러 편 창작했던 것은 놀랍지 않다. 샘 솔렉키(Sam Solecki)가 지적하듯이 “2차 대전 중 유대인들의 몰살은 20세기 그리고 아마도 서구의 도덕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21)라고 레이턴은 생각한다. 1930년대에 시인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하여 주로 1980년대까지 수십여 편의 시집을 출간했던 레이턴은 주로 1960년대 중반부터 이 주제를 발전시켰다. “안네 프랑크가 세상을 구원하는 모든 초월자의 전형이라고 레이턴은 선언한다”(6)고 마이클 그린스타인(Michael Greenstein)이 언급하듯이, 나치의 만행에 대한 저항에 그는 커다란 의의를 부여했다. 캐나다의 유대인들 중에는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당시의 참상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1960년대에 와서야 문학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홀로코스트 재현의 불가능성을 반증해주는 상황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침묵된 기억에 목소리를 내주며 참혹한 비극을 재현의 영역으로 끌어와서, 심리적 외상을 공동의 기억으로 남기는 홀로코스트 문학을 선도하는 집단에 레이턴이 속해 있었다.²⁾

이처럼 인류사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홀로코스트에 대한 비판의식을 시로 형상화한 레이턴의 시에 대하여 국내에서도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캐나다의 홀로코스트 문학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레이턴은 클라인의 계승자로 평가받는 데다가, 레오나드 코헨(Leonard Cohen) 등 캐나다 문학의 핵심적인 작가들과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이턴에 대

2) David H. Kirk, “Review of *Delayed Impact: The Holocaust and the Canadian Jewish Community* by Franklin Bialystok.” *American Jewish History* 89.1 (2001) 참조

<http://muse.jhu.edu/journal/s/american_jewish_history/toc/ajh89.1.html>

한 연구는 캐나다 문학의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레이턴이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비판하는 시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레이턴은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시와 함께 간접적으로 비유한 시도 창작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는 주요 시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간접적으로 비유하는 시까지 다룰 경우에 분석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져서 하나의 논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서 레이턴의 여러 동물 풍자시들에서 홀로코스트가 은유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시들은 다른 주제로 묶어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접적인 비판시들을 분석함으로써 홀로코스트에 대한 레이턴의 비판적인 의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홀로코스트에 대한 비판시

레이턴의 여러 비판적인 시들 중에서 「아우슈비츠 이후」(“After Auschwitz”)를 우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유대인 학살의 참혹상을 다루고 있는 「아우슈비츠 이후」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시인의 관점을 명징하게 제시해 준다. 유대인의 대량 학살이 일어난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홀로코스트 더 나아가서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대표적으로 상징한다. 따라서 아우슈비츠에 대한 레이턴의 관점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그의 관점을 집약적으로 제시해준다.

시의 제명은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Adorno)의 “아우슈비츠 이후 시를 쓰는 것은 야만적이다”라는 명제를 연상시킨다. 아도르노는 『문화비평과 사회』(Kulturkritik und Gesellschaft)(1951)에서 독일어로 “Nach Auschwitz ein Gedicht zu schreiben, ist barbarisch”라고 적었는데 흔히 “아우슈비츠 이후 시는 불가능하다”(No poetry after Auschwitz)라고 번역되어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 어구는 홀로코스트의 참혹상을 환기시킴으로써 참혹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술계의 반응을 보여주는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홀로코스트 문학 및 예술에 관한 담론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문화와 예술이 사회정치적 현실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며

내적으로부터 반응하기를 요구하는 아도르노의 의식을 표명한 발언으로 일 반적으로 해석된다. “아도르노는 홀로코스트 중의 인간의 고통은 실로 예술 에서 다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Gelbin 27)

이 시에서 화자가 피력하는 관점은 이러한 아도르노의 관점과 일치한 다. 첫 번째 연은 “나의 아들이/ 쓸데없이 말하는 시인이 되지 말아라”(My son,/ don't be a waffling poet)라는 주문으로 시작한다. 레이턴이 애용하던 전통적인 시의 기법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어서 화자는 사회 참여적인 시를 쓰도록 요구한다: “네가 쓰는 단어 마다/ 직설 적이고 정직하도록 해라/ 날카로운 총소리처럼”(let each word you write/ be direct and honest/ like the crack of a gun). 시인이 사회에 참여할 필 요성은 레이턴이 작가 생활하는 동안 자주 밝힌 바 있다. 또한 그 방식에 있어서는 총소리가 예시하듯이 직접적이기를 요구하는데, 클라인의 지적대 로 레이턴 스스로 “직접적으로 이미지를 전달하기를 원한다”(25). 이 시에 서도 한편으로는 아들로 대표되는 청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레 이턴은 자기 자신의 관점을 피력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다. 이처럼 노골적일 정도로 즉물적인 표현 방식은 기존의 관습적인 시와는 차이점이 있다.

두 번째 연에서는 “인간의 야만성”(the beastliness of men)에 대한 회의 적인 견해를 드러낸다. 화자의 판단에 의하면 “인간의 야만성”은 성경으로 도 코란으로도 교정되지 않는다. 레이턴은 상당히 비판적인 역사관을 가지 고 있었는데, 이러한 역사관이 이 부분에 반영되어 있다.

세 번째 연에서는 아우슈비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랑의 복음을 설파하는
한 민족의
살가죽으로
전등갓들이 만들어졌다.
아우슈비츠와 벨젠의 오븐들은
그들의 우매함의
명백한 증언이다.

공포와 참회의
기념비 명판에도 불구하고

어빙 레이턴의 홀로코스트 비판

나의 아들이
회개는 일시적이다.
그러나 자동소총은
평생을
살아남는다.

Lampshades
were made from the skins
of a people
preaching the gospel of love;
the ovens of Auschwitz and Belsen
are open testimony
to their folly

Despite Memorial plaques
of horror and contrition
repentance, my son,
is short-lived;
an automatic rifle, however,
endures
a lifetime

“한 민족”이 유대인을 지칭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유대인의 선량함과 대비되면서, 나치의 잔혹성이 더욱 강조되어 있다. 나치가 유대인의 가족으로 전등갓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나치의 잔혹한 유대인 취급과 관련하여 널리 퍼져있었던 소문이다. 그 진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으나, 중요한 점은 나치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일화라는 것이다. 아우슈비츠 외에도 벨젠이 언급되어 있는데, 벨젠 수용소는 안네 프랑크가 사망한 곳 이어서 레이턴에게 의미가 각별하다. 이 장소들을 언급하면서 레이턴은 죄악에 대한 기억을 재현하고자 시도한다.

네 번째 연에서는 나치의 만행에 대한 참회가 있음에도 그 실효성이 약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 역시 그의 비극적인 역사관을 반영한다. 이처럼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성과 참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아도르노와 일치하는 점이 있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시인의 관점을 위의 2연에서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데, 이는 시인이 제시하는 이미지의 강렬한 인상이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이턴은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주로 이미지와 리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위의 2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또 다른 시로 비교적 덜 알려진 「7515-03296을 위하여」(“For 7515-03296”)가 있다. “당신은 아우슈비츠의 돋보이는 졸업생이다”(you are a distinguished graduate from Auschwitz)라는 어구가 증명하듯이, 이 시는 실제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여인에게 바치는 시이다. 시 제목의 숫자는 이 생존자에게 새겨진 수감 번호이다. 아우슈비츠를 직접 체험한 희생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 감정이 표출되었다. 앞선 시에서 제시한 관점을 보다 긴밀하게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시의 첫 행은 “당신의 눈은 역사처럼 어둡고 비극적이다”(Your eyes are dark and tragic as history)로 시작한다. 참상을 직접 경험한 여인의 눈에 비친 의식에서 역사적 비극을 시인은 발견한 것이다. 가축에게 낙인을 찍듯이 팔에 수감번호가 문신으로 새겨진 그녀를 바라보는 시인의 참담한 심경이 두 번째 연에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버려진 해변에서 나의 마음은 찢겨진다
 사랑과 혐오, 감사와 역겨움에 의해
 존경과 분노에 의해
 나의 마음이 뜨거운 돌 사이의 벌레처럼 갈 때까지

on this deserted beach my heart is torn apart
 by love and loathing, gratitude and disgust,
 by reverence and rage until my frantic mind
 scurries like that insect between the hot stones

화자에게는 그녀의 생존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나치에 대한 분노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분노한 상태로 그가 세 번째 연의 마지막 두 행에서 세상에 던지는 것은 저주이며 그의 “인류에 대한 혐오는 바다처럼 광대하게 커진다”(loathing for mankind grows as vast as the sea). 나치에 대한 혐

오가 인간에 대한 혐오로 확대되며 일반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가 혐오스럽게 보는 모든 것에 저항하는 시인 예술가”(Adames 639)로서의 레이턴의 비판적인 인간관을 또다시 보여주는 부분이다. 역설적으로 보면 레이턴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인간상이 대단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위 시에서 아우슈비츠에서 희생당한 유대인과의 유대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대감은 「홀로코스트의 희생자에게」(“To the Victims of the Holocaust”)에서 더욱 명징해진다.

나의 살해당한 친족이여
내가 너의 목마르고 부어오른 혀가 되련다.
너의 입으로는 말하지 못하는
저주, 총탄과 가스에 대하여 말하면서.
너의 가장 끔찍한 저주로 나의 귀를 채워다오.
하늘의 태양이 어두워질 때까지 진정될 수 없는 그늘들
그것에 대하여 말하련다.

My murdered kin
let me be your parched and swollen tongue
uttering the maledictions
bullets and gas silenced on your lips.
Fill, fill my ears with your direst curses.
I shall tongue them, unappeasable shades, till the sun turns black in
the sky.

이 시는 앞선 시와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으면서 차이점도 있다. 생존했건 사망했건 간에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에게 시인이 유대감을 가지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저주로 이어진다. 한편 앞선 시와의 차이점은 홀로코스트의 죄악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는 점이다. 전후 한동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홀로코스트에 대한 예술계의 반응이 침체되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참상을 드러내어 알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대규모 살상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시로 「출혈」(“The Haemorrhage”)

이 있다. 이 시에서는 유태인의 대규모 살상을 출혈에 비유한다. 3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연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내 창문을 스쳐 떨어지는 가장 붉은 잎새들에게
 난 이름을 붙여준다. 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한 철 동안 화려하게 불꽃 피웠었지.
 이제 한 잎 두 잎, 더미로 쌓여서
 주변의 혼한 풀 속에서 썩어 거름이 되려니.

존재했었고, 또 있게 될 왕조들과 문명들이
 피의 빗속에 나무끼며 나를 지나쳐 간다.
 유럽은 살해당한 유대인들과 더불어 피 흘리며 사망한다. 종말.
 가장자리가 진홍색으로 병든 갈색 잎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래 거대한 피 웅덩이의 소음 없는 철פק거림에 나는 귀 기울인다.

Names I give to the reddest leaves dropping
 past my window: Hitler, Stalin, Mussolini.
 Brilliantly they fared and flared for a season;
 now they will lie in a heap, one on top another,
 turning to muck in the surrounding ordinary grass.

Dynasties, civilizations flutter past me
 in a rain of blood: those that were, those yet to be.
 Europe bleeding to death with its murdered Jews. Finis.
 The infected brown lead crimson at the edges has begun to fall.
 I listen for the noiseless splash in the immense blood-pool below.

위 시의 지배적인 이미지는 붉은색이 나타내는 피다. 두 번째 연에서 시인은 낙엽의 붉은 색을 통해서 붉은 피를 독자들에게 상기시킨다. 세계 대전을 일으켰거나 폭압적인 전체 정치를 강행하여 민중을 대규모로 살상한 독재자들이 떨어지는 가장 붉은 낙엽에 비유되어있다. 그들은 한 때 위세를 떨쳤지만 시체가 되어버린 현재에는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떨어지는 낙엽은 생명력을 상실한 존재이기도 하다. 대규모 학살을 저지른 그들은 레이틴이 평생 찬미하던 생명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들에게는 악과 죽음의 이미지가 중첩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브루스 윌리엄스 포우(Bruce Williams Powe)가 지적하듯이 레이틴에게 히틀러는 스탈린과 함께

“범죄자들, 악마들과 적들”(106) 중 대표적이었다. “반 유대적인 마을에서 자란 레이턴은 인간성에 행해진 불의, 특히 히틀러, 스탈린과 다른 자들의 악에 의해 행해진 것을 부정하려고 자신의 문화적 권위를 사용한다”(Jayanthi 34). 레이턴은 「스탈린」 (“Stalin”)이라는 시에서 스탈린 역시 “지옥의 개”(hell hound)에 비유했다.

두 번째 연에서는 “피의 비”와 “피의 웅덩이”를 통해서 출혈의 이미지와 고조된다. 이 표현은 유대인 살상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했고 대규모였다는 것을 강조한다. 전쟁과 살상 자체를 비난하는 레이턴은, 특히 유대인의 죽음을 문제시한다. 유대인에 대한 박해와 살상을 유대인의 문제로 한정시키지 않고 유럽 문명 전체의 문제로 보는 시각을 레이턴은 견지하고 있다. 하워드 애스터(Howard Aster)의 지적대로 “레이턴은 유대인들이 세계로 형제애, 박애의 주제를 불러오고 권력과 정치보다 윤리와 도덕성이 우선함을 확인한다고 생각한다”(7). 현재 유대인들이 서구 사회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레이턴의 관점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지겠지만, 20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박해를 받다가 미주로 이주해서 하류계층을 형성했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자신이 유대인이기에 유대인 중심적인 관점에서 과도하게 편향적으로 생각을 밝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점을 차지하더라도, 유대인 박해를 단순히 나치와 유대인 사이의 양자만의 문제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유대인의 박해는 유럽전체의 정치적 인종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다.

위의 시처럼 은유법을 잘 활용한 또 다른 시로 「라인 강 배 여행」 (“Rhine Boat Trip”)이 있다. 「라인 강 배 여행」은 레이턴의 시 중에서 매우 널리 알려져 있고 분석되는 시로 필수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4개의 연으로 구성된 시는 라인 강변에 대해 묘사로 이루어져 있다.

라인 강변 성들에는
모두
유대인 어머니들 혼령이 출몰한다
귀신이 된 자식들을 찾는

언덕 비탈 포도원의
포도송이들은

눈부신 태양을 응시하는
 멀어버린 눈들이다.

지칠 줄 모르는 로렐라이
 저들의 머리로부터
 살해된 율법사들의
 새빨간 수염을 결코 빗질할 수 없다

아무리 달콤하게 노래 부르지언정
 들리는 소리는
 이 땅을 보이지 않게 지나가는
 소달구지의 낮은 울부짖는 소리.

The castles on the Rhine
 are all haunted
 by the ghosts of Jewish mothers
 looking for their ghostly children

And the clusters of grapes
 in the sloping vineyards
 are myriads of blinded eyes
 staring at the blind sun

The tireless Lorelei
 can never comb from their hair
 the crimson beards
 of murdered rabbis

However sweetly they sing
 one hears only
 the low wailing of cattle-cars
 moving invisibly across the land.

라인 강의 끊임없이 흐르는 물결처럼 문장부호를 생략한 채 작성된 이 시는 표면적으로는 라인 강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면서 유태인 살상에 대한 회고적 감상에 빠지는 시 정도로 일견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묘사된 풍경이 상징적으로 내포하는 의미를 파악하면, 시가 전체적으로 나치의 유태인 살상을 조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연의 라인 강변의 성들은 위용을 자랑하는 독일 제국의 유산으로 독일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이다. 라인 강변의 성들은 공고한 독일의 지배체제에 대한 환유이다. 독일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이 아름다운 고성에 자식을 잃어 한 맺힌 유대계 어머니들의 혼령이 출몰한다. 경치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비극이 대조를 이루면서 슬픔은 더욱 깊어진다. 따라서 독일의 표면적인 영화로움에 대한 조소이며, 이 조소 이면에는 역사적 비극을 상기시키려는 의지가 기저하고 있다.

두 번째 연 역시 표면적으로는 라인 강을 따라 주변 경사지에 아름답게 조성된 포도밭을 묘사한다. 그러나 이 풍경의 묘사는 히틀러에 열광했던 독일의 정치 상황에 대한 풍자이다. 포도송이는 독일 국민을 상징하고, “눈 멀게 하는 태양”은 히틀러를 상징한다. 태양은 서양에서 전통적으로 최고 권력자를 상징해 왔다. 즉 맹목적으로 히틀러를 추앙했던 독일 국민들의 풍자이다. 이 연 역시 아름다운 풍경과 고통스러운 역사가 병치되어서 슬픔이 가중된다.

세 번째 연에서부터 로렐라이가 등장한다. 로렐라이가 암시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로렐라이의 전설 및 이와 관련된 시를 파악해야 한다. 로렐라이는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라인 강에 투신자살한 여자의 이름이다. 1824년에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가 이 전설을 근거로 한 시 *Die Lorelie*를 지었다. 이 시에서 로렐라이는 황금색 머리카락을 황금색 빛으로 빛으면서 노래를 한다. 로렐라이가 환기시키는 것은 잊혀지지 않는 억울한 죽음이다. 로렐라이가 머리카락을 빗질하는 행위는 과거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제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로렐라이도 살해당한 랍비의 원혼을 풀어줄 수는 없다.

네 번째 연에서는 로렐라이의 달콤한 노래 소리와 우마차의 낮은 소리가 대조되어 있다. 청각적인 영역에서 외피적인 아름다움과 역사적 비극이 대조를 이룬다. 우마차는 원래 가축을 실어 나르는 차인데 여기서는 전시에 유대인들을 실어 나르던 우마차를 지칭한다. 가축 취급을 받았던 유대인들의 울부짖음에 로렐라이의 유혹적인 노래 소리도 덮여진다.

위 네 연 모두 아름다움과 역사적 비극이 대조되는 구성적인 특징이 있다. “죄책감에 찬 과거와 가장하는 현재의 병치들”(39)을 그린스타인이 지적하듯이, 외피적인 아름다움 이면의 역사적 비극을 부각시키는 방법을 시

인은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는 나치즘의 위악에 대한 비판의식이 기저하고 있다.

레이턴의 나치를 비판하는 시들은 역설적으로 조소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난다. 레이턴의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역사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나치 또는 나치와 연루된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다룬 시에도 기저하고 있다. 이는 나치와 사적으로 마주치는 상황을 묘사한 「그림자」(“The Shadow”)에서 잘 드러난다. 두 번째 연의 시작 부분에서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칼날에 비유한다.

나는 나의 그림자를 튀어나오는 칼날처럼 풀어 놓는다
또는 혼령의 움푹 들어간 웃음처럼
그것이 닦아 놓은 난간에 퍼질 때에

I release my shadow like a switchblade
or the cavernous grin of a ghost
as it spreads across the polished bannister

화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튀어나오는 칼날” 또는 “혼령의 움푹 들어간 웃음”에 비유한다. 그의 그림자는 나치에 대해 비판하고 조소하려는 그의 의지를 상징한다. 그런데 그의 의지가 그림자의 형상을 띠는 것은 그의 의지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혼령에 비유하는 이유는 나치 때문에 죽은 유대인들과 화자가 동질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연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는 내 테이블에 앉는데, 나를 용서하지 마시오.
벽에 평평하게 기대어
늪어가는 곡예사처럼 나의 채워진 잔을 다루면서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방충제를 넣어둔 그들의 나치 유니폼에

I sit at my table, nein excuse me,
lie flat against the wall and manipulate

my filled glass like an aging acrobat
taking care not to spill a single drop
on their mothballed Nazi uniforms

시인은 “나를 용서하지 마시오”라고 서두에서 밝히는데, 영어가 아닌 독일어 단어 ‘nein’을 사용한다. 이 시가 독일인들, 특히 나치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임을 화자는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레이턴이 역설적으로 나치에게 조소를 보내는 성향은 첫 번째 연에서 발견할 수 있다. 화자가 나치의 복장에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조심한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여기에서 “한 방울”은 표면적으로는 와인 한 방울이지만 피를 암시한다. 나치의 제복을 피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은 역설적인 표현이다.

네 번째 연에서는 비꼬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역설적인 화법을 사용한다.

거대한 사건들에 대한 당신의 무관심을 가르쳐 주시오
당신의 사나운 핑크색 얼굴의 상냥함을
낡은 유대인의 두개골에 주먹을 내려치듯이
당신이 테이블에 카드를 내려칠 때에.

teach me your indifference to great events
your boisterous pinkfaced affability as you slam
down your cards on the table as if they were fists
on an old Jew's skull.

거대한 사건들에 대한 무관심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은 실제로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거대한 사건들”이 지칭하는 홀로코스트를 포함하는 역사적인 비극을 망각하지 말고 심각하게 인식하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독일인들에게 홀로코스트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이다. 「홀로코스트의 희생자에게」에서 “나는 맹인, 귀머거리와 병어리 사이에 산다/ 나는 기억상실증 환자들 사이에 산다”(I live among the blind, the deaf, and the dumb/ I live among amnesiacs)라고 화자가 말하는 이유 역시 독일인들의 망각 내지 의도적인 은폐에 있다.

상대방의 상충적인 모순성은 그가 테이블에 카드를 내려칠 때의 상태에

대한 묘사에서 계속 이어진다. 그는 역동적이면서도 상냥하게 묘사되는데, 그 행위는 유태인의 두개골에 주먹을 내리치는 것에 비유되어 있다. 이러한 상충적인 부조리성이 내재하는 양태를 묘사함으로써 레이턴은 죄악을 저지른 나치가 참회하지 않는 역사적인 모순을 조소하는 것이다.

III. 결론

레이턴의 실제 시들을 고찰함으로써 나치즘과 홀로코스트에 대한 그의 비판적인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시들은 일단 홀로코스트에 대한 영문학의 한 가지 반응 양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홀로코스트 이후에 그리고 아도르노 이후에 시가 어떻게 문화적인 비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레이턴은 궁극적으로 사례를 제공한다”(101)는 조던 앤서니 베러드(Jordan Anthony Berard)의 평가는 타당하다. 나치의 대학살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역사적 비극으로 시적 영역에서 각인시키는 노력에 레이턴은 특유의 방식으로 참여한다. 홀로코스트 문학의 조류에서 레이턴에게 부여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치와 의의는 당시대 홀로코스트 문학의 한계를 탈피하려고 시도했고, 또한 어느 정도 성취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관습의 틀에 갇혀서 표현의 한계를 가지고 있던 여타 시인들과는 달리, 레이턴은 추악하고 타락한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대중들이 홀로코스트에 눈을 뜨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기여한 바가 있다.

유태계로서 레이턴이 보여주는 시각은 양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는 펄박 받은 자신의 민족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의 정신세계를 잘 이해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은 분명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면에 단점 또한 있다. 과도할 정도로 자기 민족 중심적인 편협한 관점에서 다룰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유태계 쇼비니스트도 이스라엘의 쇼비니스트도 아니다”(Mansbridge 283)라고 스스로 말하는 레이턴을 어느 정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가 홀로코스트를 다루는 관점과 기준은 대

체로 인류 보편적인 가치관의 틀에서 그다지 벗어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 외팔이 저글러의 공들』(Balls for a One-armed Juggler)에서 레이턴이 표명하는 관점에 의하면, 시인은 “인간 존엄과 가치, 박애, 자유와 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a voice calling for human dignity and worth, for charity, freedom and sacrifice)(17)로 존재해야 한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비판은 레이턴이 표방하는 관점에 부합하면서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시적 형상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룬 레이턴의 시는 그의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렇더라도 현대 캐나다의 홀로코스트 문학에서 레이턴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여겨진다. 레이턴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국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홀로코스트 문학에 대한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참고문헌

- Adames, John. "LAYTON, Irving(Israel Lazarovitch)." *Encyclopedia of Literature in Canada*. Ed. W.H. New. Toronto: Toronto UP, 2002. 637-40.
- Aster, Howard. "Introduction." *Irving Layton: Taking Sides*. Oakville: Mosaic P, 1977. 5-8.
- Berard, Jordan A. "Estimate Your Distance from the Belsen Heap": Acknowledging and Negotiating Distance in Selected Works of Canadian Holocaust Literature. PhD. Diss. University of Ottawa. 2016.
- Francis, Wynne. *Irving Layton and His Works*. Toronto: ECW P, 1985.
- Gelbin, Cathy S. "Cinematic Representation of the Holocaust." *Writing the Holocaust*. Eds. Jean-Marc Dreyfuss and Daniel Langton. New York: Bloomsbury, 2011. 26-40.
- Greenstein, Michael. *Third Solitudes: Tradition and Discontinuity in Jewish-Canadian Literature*. Montreal: McGill Queen's UP, 1989.
- Jayanthi, Esther. "Jewish Canadian Poetry." *Online Course Material On Canadian Studies*. 29-45.
http://www.canadastukeralauniv.edu.in/pdf/Unit_4.pdf. Accessed 13 July 2016.
- Klein, Abraham Moses. "Review of Here and Now." *Irving Layton: The Poet and His Critics*. Ed. Seymour Mayne. Toronto: McGraw-Hill, 1978. 23-6.
- Layton, Irving. *A Wild Peculiar Joy: the Selected Poems*. Toronto: McClelland, 2004.
- . *Balls for a One-armed Juggler*. Toronto: McClelland & Stewart, 1963.
 - . *For My Neighbors in Hell*. Oakville: Mosaic P, 1980.
 - . *Taking Sides*. Oakville: Mosaic P, 1977.

어빙 레이턴의 홀로코스트 비판

- Mandel, Eli. "Foreword." Irving Layton the Unwavering Eye: Selected Poems 1969-1975. Toronto: McClelland & Stewart, 1975.
- Mansbridge, Francis. Wild Gooseberries: The Selected Letters of Irving Layton. Toronto: Macmillan of Canada, 1989.
- Powe, Bruce William. A Climate Charged. Oakville: Mosaic P, 1984.
- Solecki, Sam. "Introduction." A Wild Peculiar Joy: The Selected Poems. Toronto: McClelland, 2004. 15-27.

Abstract

Irving Layton's Criticism on the Holocaust

Lee, Hyub(Chosun Univ.)

As a Jewish poet in Canada, Irving Layton criticizes the Holocaust during the 2nd World War. Derived from Adorno's dictum, "After Auschwitz" manifests Layton's concern with the genocide. Layton contemplates that the poetic effort to denounce the Nazi's crime that sacrificed Jews is not sufficiently effective, which is in line with Adorno's opinion. In "For 7515-03296," seeing a survivor from Auschwitz, the speaker with a pessimistic vision deplores the historic tragedy. Similarly, "To the Victims of the Holocaust" emphasizes the solidarity of Layton with the Jewish victims. In "The Haemorrhage," military dictators like Hitler, Mussolini and Stalin are compared to fallen crimson leaves. The red image is compared to the blood of Jews. In "Rhine Boat Trip," the beautiful scenery of the Rhine is contrasted with the historical tragedy of Jews. The alluring beautiful song of Lorelei is contrasted with the cry of Jews, which intensifies the poignant memory. Grapes on a vineyard facing blinding sun symbolize Germans worshipping Hitler. In "Shadow" irony is used to mock arrogant Nazis. Layton's poems are aimed at recovering human dignity.

■ Key words : Irving Layton, Jew, Nazi, Holocaust, Hitler

접수일자: 2016. 10. 30	심사일자: 2016. 12. 18	게재결정: 2016. 12. 29
--------------------	--------------------	--------------------

